

'반도체 의인화' SK하이닉스 광고 SNS서 인기

두번째 광고 '수출편' 유튜브 2280만 뷰

SK하이닉스의 후속편 광고 영상 '수출편'이 SNS에서 대박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달 말 방영된 이 광고는 공개 열흘 만인 9일 오전 유튜브 조회수 2280만회를 넘어섰다. 전편인 '졸업식편'에 이어 연달아 대박을 향해 달리는 상태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후속편 초반 흥행에 대해 "젊은 세대에게 '친근한 회사, 일해보고 싶은 회사'로 다가서고자 한 취지에 맞는 성과가 나오고 있어 무척 고무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편과 달리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영어권 국가들에도 광고를 공개해 더욱 빠르게 조회수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SK하이닉스가 해외에서도 더욱 널리 알려지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9일 오전 기준 전체 조회수 2280만 뷰 중 국내 960만,



SK하이닉스가 새롭게 방영을 시작한 광고 영상 화면. /SK하이닉스

해외 1320만이다.

광고업계에서는 전편이 기록한 유튜브 3000만 뷰는 국내 상영 목적으로 제작된 기업 광고로는 사상 최고라는 평가다. B2B 기업의 광고가 이렇게 잇달아 큰 반향을 얻고 있는 건

놀라운 일이라는 반응이다.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 코리아 관계자는 "졸업식편과 수출편 모두 유튜브를 즐기는 영유자들이 열광하는 맥을 정확하게 짚은 광고"라고 평가했다. /안병도 기자 catchrod@metroseoul.co.kr

S-OIL 청년 푸드트럭에 1억원 유류비 지원

S-OIL은 '청년 푸드트럭 유류비 전달식'을 갖고 '함께 일하는 재단'에 후원금 1억원을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S-OIL은 청년 창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푸드트럭 활성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실업난 해소와 청년층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푸드트럭 유류비 후원 프로그램을 올해 새롭게 마련했다.

함께 일하는 재단은 만 39세 미만의 전국 푸드트럭 창업자를 대상으로 유류비 지원 프

그램을 공고하고 서류 및 현장 심사를 거쳐 수도권 25개 팀과 부산, 대구, 광주 등 지방에서 15개 팀 등 총 40개 팀을 선발했다. 각 팀에게는 200만원 상당의 주유상품권이 지급된다.

오스만 알 감디 S-OIL CEO는 "작은 자본금과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향해 열정적으로 매진하는 청년 사업가들의 꿈을 응원하고 존경을 표한다"며 "사회 구성원 모두가 청년들의 꿈을 응원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기 바람"이라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9일 S-OIL이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물빛광장에서 '청년 푸드트럭 유류비 전달식'을 갖고 '함께 일하는 재단'에 후원금 1억원을 전달했다. /S-OIL

는 땀과 눈물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후원하겠다"고 말했다.

아모레퍼시픽 '핑크리본 힐링캠프' 3년 연속 후원

아모레퍼시픽은 유방암 환자의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목적으로 한국유방건강재단이 주최하는 '2018 핑크리본 힐링캠프'를 3년 연속 후원한다고 9일 밝혔다.

아모레퍼시픽은 지난 2000년부터 한국유방건강재단과 함께 유방암과 유방 건강에 대한 인식 향상을 목적으로 '핑크리본 캠페인'을 전개해오고 있다.

이번 캠프 참가자 전원은 1박 2일 동안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정서적 안정과 심을 경험하는 것은 물론 소통 전문가와 유방암 전문의 특별 강연, 쿠킹 클래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에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김민서 기자 min0812@



아모레퍼시픽이 후원하는 '2018 핑크리본 힐링캠프' 포스터. /아모레퍼시픽

필라코리아 잠실야구장서 '힐라 데이' 개최

필라코리아는 회사 창립 27주년을 기념해 지난 6일 오후 서울 잠실 야구장에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힐라 데이(FILA DAY)' 행사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국내 프로스포츠계 역사상 최장기간 파트너십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두산 베어스 홈경기장을 전 임직원

이 함께 관람하고 응원하는 '힐라 데이' 행사로 마련한 것이다. 힐라코리아는 6일 오전 서초동 힐라코리아 본사에서 창립 기념식을 진행한 뒤 오찬을 가졌다. 업무가 종료된 뒤 저녁에는 잠실 야구장에 모여 단체 응원을 펼치는 시간을 가졌다. 직원 가족들도 참석할 수 있도록 해, 가족 단위 레저 활동을 독려했으며, 임직원 및 참석 가족 전원에게 힐라, 두산 심볼이 새겨진 응원용 기념 티셔츠와 애코백 등을 증정했다. /김민서 기자



잠실야구장을 찾은 힐라코리아 임직원 모습. /필라코리아

오늘의 운세 7월 10일 (음 5월 27일) <http://www.saju4000.com>

 쥐	48년생 남의 말에 좌우되지 말고 주관을 갖자. 60년생 기다리던 것일수록 잘 살펴야 실수가 없는 법. 72년생 성공이 코앞이니 조금 더 노력. 84년생 힘들어도 하던 일을 계속해야 성공을 이룰 수 있다.	 말	54년생 가까운 사람과의 불화를 조심하라. 66년생 패망한 나라의 옥새가 무슨 소용이 있겠나? 78년생 결과가 좋아서 과정보도 좋은 평가를 받는 법이다. 90년생 별을 두려워하면 꿈을 얻지 못한다.
 소	49년생 신장계통의 질환이 의심되면 바로 병원. 61년생 원하던 일이 순조롭게 풀리나 의외의 복병이 있으니 주의. 73년생 부모님의 안부를 챙겨야 하는 날. 85년생 지치기 쉬운 날이니 휴식이 필요하다.	 산	55년생 배우자가 나의 고생을 알아주니 행복. 67년생 물이 너무 많으면 고기가 살 수 없는 법이다. 79년생 자존감을 나를 지켜주는 힘이다. 91년생 작은 것에 집착하면 큰 것을 놓칠 수 있으니 크게 보고 행동.
 호랑이	50년생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다 놓칠 수 있다. 62년생 배우자와 다른 사람에게 눈길을 주지 마라. 74년생 새 인연으로 새로운 거래가 생긴다. 86년생 서로 돕고 이해하는 것이 전체의 이익을 가져온다.	 원숭이	56년생 초대받은 손님으로 환영을 받으니 기쁨이 넘치는 날. 68년생 흘러가는 대로 유유히 하루를 보내자. 80년생 노력한 만큼 성과도 좋으니 전진. 92년생 도장 찍을 일이 있다면 오늘이 그 날이다.
 토끼	51년생 병도 약도 다 내뺐다. 63년생 사방으로 운이 열렸으니 미련도 일은 오늘 마무리하자. 75년생 멀리서 친구가 찾아오니 기쁨. 87년생 선봉에 나서는 것이 다른 사람들의 시기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	 닭	57년생 아둔한 나를 탓하고 배우자를 배려하자. 69년생 조급한 행동이 일을 그르칠 수 있음을 명심. 81년생 구슬수가 있으니 새로운 만남을 조심하라. 93년생 남을 배려하면 그만큼 나에게 되돌아온다.
 호랑이	52년생 어린 사람과의 갈등이 생기니 주의. 64년생 발전이 느려 답답하나 현상 유지가 오늘에 최선이다. 76년생 금전운이 따르는 하루. 88년생 기회가 주어져도 망설이다가 놓칠 수 있으니 과감한 결단이 필요.	 돼지	58년생 물가로 피서를 떠나보자. 70년생 사람을 믿는 것이 가장 큰 자산이요 보물임을 잊지 마라. 82년생 인맥을 이용해서 유리한 정보를 얻어라. 94년생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는 법이다.
 뱀	53년생 먹을 복이 있는 날. 65년생 새로 시작한 일에 기대를 많이 했지만 실리는 별로 없다. 77년생 일시적 감정으로 행동하면 입방아에 오를 수 있다. 89년생 걱정이 해소되고 마음이 평화로운 하루.	 돼지	59년생 기대를 많이 한다면 노력도 그만큼. 71년생 바람이 불어대니 마음 둘 곳을 모르고 방황하는 날. 83년생 검은색 옷을 입을 일이 생긴다. 95년생 생각을 바꾸면 의외의 곳에서 길이 보인다.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세로 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1					2			
		8	4		7	9		
	5	1		7		8	6	
9		7			1			3
6								9
			5		2			
1	4					5		6
	9	5	8		1	3	4	

					2			
	2			1		4	5	
			7			9		
		6						4
	8				4	5		7
3				7		1		2
	5	4		2	8		7	1
	3							
			6	4	9	3		

스도쿠 정답

2	7	8	1	9	8	5	6	4
9	8	5	6	4	7	3	2	1
1	6	4	2	7	5	9	8	3
6	4	2	7	5	1	8	9	3
8	5	1	9	8	7	2	4	6
7	9	8	6	4	2	1	5	3
8	9	5	1	6	2	7	4	3
5	1	6	4	2	7	8	9	3
4	2	7	8	9	6	1	5	3
5	8	9	6	7	9	2	1	4
6	7	2	4	5	1	8	9	3
1	4	9	8	2	7	5	6	3
2	6	1	9	4	8	5	7	3
4	9	5	7	8	2	6	8	1
7	8	1	6	5	9	4	2	3
8	2	6	5	8	4	1	9	7
9	5	7	8	1	6	4	2	3
8	1	4	2	9	7	6	5	3

문제 제공= 보너스

김상회의四季
운명이 궁금하다면서

운명의 길이 궁금할 때 사람들은 '점'을 보곤 한다. 상담을 위해 필자를 방문하시는 분들 중에는 가끔 안타까움을 유발하는 이들이 있다. 운세가 궁금하다며 왔으면서 한 번에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다. 점은 인생 전반의 기운을 살피면서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필자는 명리 상담이나 점사를 목욕에 비유하곤 한다. 목욕은 신체의 건강 유지에 필수적이다. 기본까지 충족해준다. 그러나 몸속의 노폐물을 빼내는 목욕은 최소 일주일이나 이 주일에 한 번쯤은 해준다. 운명상담을 목욕만큼 자주 할 필요는 없지만 한 번 왔을 때 모든 것을 취할 수가 없다. 한 번 목욕으로 평생을 보낼 순 없다는 의미로 비유한 것이다. 우리 어머니나 할머니들은 새해가 시작될 때 그 한 해의 전반적인 운을 살펴 조심할 일은 조심하였다. 좋은 운이 들어 있다면 이 좋은 운을 잘 받기 위해 마음을 겸손히 성실히 하여 좋은 운이 의미 없이 지나가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한 번 와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 든다. 인생사란 그럴 수가 없는 것이다. 목욕 한 번 하고 평생을 청결히 지내기를 바랄 수 없다. 게다가 점사의 결과가 노력이나 조심함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혹여 조상의 영가에 관한 문제거나 하면 간략하나마 천도제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그들은 운세가 궁금해서 왔으면서 뭔가 문제가 느껴져서 왔으면서도 물어본 것만으로 일이 해결되기를 바란다. 게다가 어떤 이는 이 역학인이 잘 맞추는지 실험하려 하기도 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부탁할 일이 있으면 최소한 식사대접이라도 하면서 부탁을 한다. 그런 것처럼 영가의 문제가 걸린 부분은 전통적인 방식대로 기도나 천도제로 풀 수밖에 없다. 그런데 조상님을 대접하는 방식엔 소홀하다. 조상을 공경까지는 못하더라도 존중은 할 줄 알아야 한다. 형편이 안돼서 못하는 경우는 정성껏 물잔 하나만 올려도 감응을 한다. 그리고 자신의 형편이 안돼서 못하는 것인지 뭔가 아까워 못하는 것인지 신명들은 다 알게 된다. 조상님을 생각하며 정성껏 제사를 장만하여 흥망 드리는 것이 그렇게도 어려운가? 조상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다면 복을 바라는 것도 조상 덕을 바라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사주가 궁금하다면서 운명이 궁금하다면서 마음은 경우를 모른다. 만약 상담하는 역학인이 못미더워 조상님께 공덕을 못 올리면 그런 경우에도 회향의 마음을 담아 물 한잔이라도 올리면서 고하여야 한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